

●●● 서옥석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가금과장

## 양계산업에 꼭 필요한 연구팀으로



지난 4월 1일부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가금과장에 서옥석 기획실장이 임무를 맡았다. 서옥석 과장은 기획실장으로 3년동안 재직하는 동안 가금과를 떠났지만 스스로 가금맨이라는 점을 소중히 여겼다.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축산연구소가 최우수 책임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는데 그때마다 가금과 동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꼭 친정집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이제 내 집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라고 신임 가금과장으로써의 포부를 밝혔다.

### ◀ 서옥석

1992 축산연구소 가금과(연구사)  
2002 축산연구소 가금과(연구관)  
2004~2007 축산연구소 기획실장  
2007. 4~현재 축산연구소 가금과장  
충남대학교 가금영양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

### 가금과의 인연

서옥석 가금과장의 경력은 좀 색다르다. 축산전문지도사로서 농촌지도소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연구직 공채시험을 통해 축산연구소 가금과와 인연을 맺었고, 2001년도에는 ‘대형육계 생산기술 연구 결과’로 농촌진흥청 주관 제1회 농업연구

대상을 받고 연구관으로 특진하였다.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아직까지 특별 승진한 사람이 없으니 그는 유일무이한 특별승진자인 셈이다. “당시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각자의 성과를 모아서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큰 빛을 졌지요”라고 당시를 회고하며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 한미 FTA 타결, 이제부터 시작

양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한·미 간 FTA 체결이다. 서옥석 과장은 한미 간 FTA 체결은 시작에 불과하고 거시적으로 볼 때 축산분야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이제 막 링 위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알리는 종이 울린 것 처럼 상대선수와 체급이 다르다는 원망을 할 시간조차 넉넉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한 진단과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옥석 과장은 가금산업의 생산액이 '05년도 기준으로 육계 1조 1,132억원, 산란계 1조 853억원, 오리 4,368억원으로 총 2조 6천억 원 정도이며, 이것은 축산분야 생산액 중 22.4%를 차지할 정도로 가금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06년도 국내 계란 생산량은 531천 톤이고 향후 10년간 수요량이 591천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닭고기 총수요는 381천 톤이고 소득증가에 따라 백색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10년 내 수요가 505천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양계산업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한편 수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금 관련 질병 문제가 사라질 경우 계란은 중국산 조란과의 1차 경쟁이 예상되고 현재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닭고기는 2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금과에서는 양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기술, 정책 지원기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제 때 정답을 내놓는 연구팀을 조성

서옥석 과장은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산자 요구 신기술 제공, 둘째 신수요 창출 역할을 하는 소비자 요구 가금산물을 개발, 셋째 정책기관, 학계와의 교류 및 상호협력, 넷째 축산연구소 각

부서와의 상호 보완적 공동연구 활성화, 마지막으로 산업체 및 해외기관과는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계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축산연구소 가금과는 우리나라의 가금산업을 위해 존재합니다. 산업이 처한 현실이 가시밭길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공염불만 되 뇌이고 있다면 양계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산업현장에서 물어오는 질문에 즉시 정답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금과를 만들 생각입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미래의 기술수요에 대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빠르게 많이 생산해내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어왔다면 앞으로는 양계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적정 사양체계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외국산 양계산물과의 경쟁을 위한 생산성·유통 관련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계열업체 단위의 생산·출하·마케팅·리스크 관리체계를 제시하는 일, 그리고 생산기술 중심에서 복지·환경·소비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가금 산업기술 수요도 적절히 대응하는 일도 가금과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 고객의 소리에 귀를

서과장은 가금과의 고객은 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가축개량기관, 산업체, 지자체 소속 축산 관련 기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시너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지속 관리되도록 명단을 D/B화 하여 비판자 조연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단체, 소비자 등과의 연계 활동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언론 관계자는 사업 홍보 및 평가자로 활용하고 우수연구결과와 기술이전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가금과의 존재를 알리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